

권력 생산하는 돈의 숨바꼭질은 계속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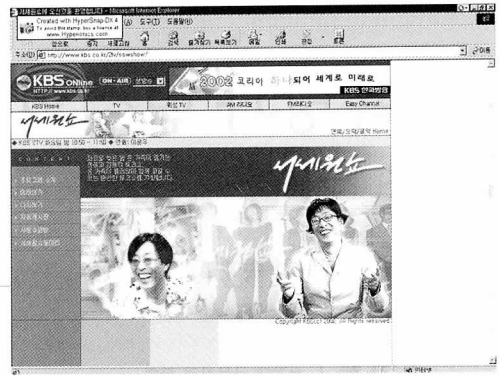
대중문화 속 돈의 이미지

고길섭 | 문화비평가 · 월간 《문화연대》 편집실장

대중문화의 대표주자라 할 수 있는 텔레비전을 한번 보자. 날이면 날마다 시시때때로 온통 연예인들 사생활 이야기로 도배하고 있다. 게다가 우스갯소리로 하는지 몰라도,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 따위의 대화가 오고가는 게 예사다. 사생활 이야기를 구구절절이 시청자들에게 듣도록 강요하는 폭력은 차치하고, 왜 그렇게들 돈의 노예가 되기를 자처하는 걸까. '공인' 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공공 공간에서 말이다. 나도 돈을 마다하지는 않는다. 대박이라도 한번 터졌으면 하는 바람이 나를 유혹하기도 한다. 텔레비전에 출연하는 연예인들이 돈 이야기를 전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돈과 자신을 스스로 몰신화시키는 그네들의 토크풍토가 대중문화를 부패시키는데도 그네들은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돈의 이미지 복합적으로 생산하는 기계, 대중문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이들은 한번 떠서 돈을 왕창 벌기 위해 연예인이 되려는 꿈을 키운다. 그러나 연예인들만이 부패의 몫을 거드는 것은 아니다. 텔레비전이라는 대중문화매체는 어찌면 돈의 이미지를 복합적으로 생산하는 기계인지도 모른다. 드라마 같은 데서는 간혹 돈 때문에 절망하는 사람들의 사연들을 갈등적으로 그려내기도 한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돈 때문에 살인이 일어나는 실제상황 프로그램들은 아예 우리의 이성감각을 무디게 한 지 오래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텔레비전에서 돈 자체를 부정하는 화법이 등장한 적은, 내 기억으로는 한번도 없다. 돈이 저주스럽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부정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저주는 강한 긍정을 위한 몸부림의 이미지를 신화처럼 등장시킨다. 드라마가 아닌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도 성공신화는 결국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하다. 돈을 많이 벌어야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다.

때로는 텔레비전을 하루종일 보는 나로서는, 텔레비전이 돈의 문제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비판하는 맥락에서 혹은 다른 대안을 찾아보는 맥락에서 다른 것을 본 적이, 내 기억으로는 한번도 없다. 돈을 매개하지 않는 대안적 삶에 대해서는 다뤄볼 만도 한데 그러지 않는 것이 하, 수상하다. 가령 '지역화폐' (공동체의 구성원들끼리 돈이 아닌 다른 것으로 교환하는 것)라는 것도 있지 않은가 말



텔레비전은 돈의 이미지를 긍정할 뿐 그 반대로는 성찰하지 않는다. 사진은 한 방송사의 인터넷 사이트.

이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텔레비전이라는 대중문화매체는 강도와 화법을 달리 하긴 해도 돈의 이미지를 긍정하는 쪽으로만 밀고 나가지 그 반대로는 성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중매체는 돈을 긍정할 뿐 성찰하지 않는다 나의 이런 가설이 참이라면, 텔레비전은 매우 교묘하게 돈 이미지 놀이를 하는 셈이다. 우리가 노동을 거부하지 못하는 것은 돈을 거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일 자체가 좋아서가 아니라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일에 시달린다. 일에 시달리는 정도만이 아니다. 하고 싶지 않은 아니꼽고 치사하고 구역질나는 일에 모든 정력을 바쳐야 한다.

텔레비전이 다른 대중문화와 다른 것 가운데 하나는 노동을 거부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돈을 거부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은 텔레비전이라는 대중문화매체가 욕망과 이데올로기의 숨바꼭질 놀이를 기계적으로 배치하기 때문이다. 욕망의 얼굴이기도 하고 이데올로기의 얼굴이기도 한 숨바꼭질 놀이는 돈의 이미지로 만들어진다.

사실 돈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것은 참으로 곤혹스런 일이다. 돈의 폐해는 이미 누구나 다 알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조선시대의 어떤 학자는 화폐폐지론을 주장한 바 있다. 농사가 천하의 근본이라고 생각하던 때도 이미 화폐가 비판받을 정도였으니, 모든 것이 돈으로 환산되는 오늘날이야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돈을 없애지 못하는 것은 교환의 편리함 때문일 터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변명이 아닐까. 편리함 때문이 아니라 돈은 권력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는 게 아닐까. 무서운 일이다. 바로 그 점 때문이라도 우리는 돈의 문제에 대한 사유를 포기할 수 없다. 대중문화에서 돈은 단지 욕망과 소비의 신화가 아니라 권력을 생산하는 수단이 된다. 욕망과 이데올로기에서 돈의 숨바꼭질 놀이를 하는 권력의 생산. 우리의 대중문화는 결코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단 말인가. ■

고길섭씨는 월간 《문화연대》 편집실장이며 서울문화이론연구소 연구원으로 활동중이다. 《우리 시대의 언어게임》 《논술의 유혹》 《논술행 기차를 바꿔타자》 《소수문화들의 정치학》 등을 펴냈다.